

고운사 연수전의 역사성과 역사콘텐츠 시각의 적용*

이규철**

-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기로소원당 건립의 역사적 배경
 - III. 연수전의 복합적 성격과 역사콘텐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의성 고운사(孤雲寺) 연수전(延壽殿)은 조선시대에 기로소(耆老所)와 원당(願堂)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특별한 성격의 역사유적이다. 고운사 연수전은 기로소원당으로 본래 형태를 거의 그대로 갖추고 현재까지 보존되었다. 연수전은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운사 연수전은 역사콘텐츠의 개념을 적용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소재이다.

고운사 연수전에 관련된 소재들을 역사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 본 논문은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최, 의성군 후원 학술회의 『고운사 소장 기록유산 일체 조사 사업 <고운사 연수전의 가치>』(2022.11.11.)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는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고운사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사료를 포함해서 현대 시기에 생산되었던 자료도 폭넓게 수집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중들이 고운사와 연수전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의 기반을 갖추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운사 연수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부각하면서 관련 소재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역사유적 연수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은 유교적 소재와 불교적 소재를 모두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수전의 복합성을 부각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방향이 아니라 관련 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고운사(孤雲寺), 연수전(延壽殿), 기로소(耆老所), 원당(願堂), 역사콘텐츠

I. 머리말

의성 고운사(孤雲寺) 연수전(延壽殿)은 조선시대 기로소(耆老所)와 원당(願堂)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역사건축물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로소는 문과 출신의 정2품 이상의 전·현직 관원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기관이다. 원당은 특정인의 소원 혹은 기원을 비는 법당으로 주로 사찰 안에 건립되었다. 기로소와 원당이 설립되었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기로소원당으로 역사건축물이 건축되었던 사례는 매우 적다. 더욱이 기로소원당의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시대 기로소원당으로 그 형태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시대 사회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로소와 불교와 관련된 종교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원당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따라서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시대는 물론 한국사 전체에서도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전통건축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관련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연수전에 관한 비교적 많은 정보가 남아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역사콘텐츠학은 역사 소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고 관련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고운사 연수전은 역사콘텐츠학 분야에 많은 과제를 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또한 고운사 연수전과 관련된 역사자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더욱 활발한 관련 콘텐츠의 생산을 기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운사 연수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에 비해 그동안 역사학계의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고운사 연수전 자체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미술사 분야에서는 조선시대 기로소원당 건축의 역사적 배경과 건축 양식 등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고운사 연수전을 함께 설명하는 선구적 연구가 발표되었다.¹⁾ 이후 19세기 고종대 조선 왕실이 불사(佛事)를 후원했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는 동시에 고운사 연수전 등의 기로소원당의 건축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발표되었다.²⁾

1) 이용윤, 2005 「朝鮮後期 寺刹에 건립된 耆老所 願堂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3, 불교미술사학회.

2) 손신영, 2014 「19세기 王室 後援 사찰의 조형성 -高宗年間을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4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한국사 분야에서는 고운사 연수전 자체보다는 원당과 기로소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로소원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불교사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원당 설치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던 연구를 통해 고운사 연수전의 중요성이 설명되었다.³⁾ 이외에도 조선후기 숙종과 영조의 기로소 입소와 기로연 개최가 가지는 정치적 배경을 설명했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⁴⁾ 이를 통해 조선후기 기로소가 가지는 상징성과 국왕들이 기로소-기로연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장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다만 역사콘텐츠 분야에서는 고운사 연수전이나 기로소와 원당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운사 연수전은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건축물로 역사콘텐츠학의 방법론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 판단한다. 역사건축물 자체를 통해 특정 역사시대의 정치상과 사회상은 물론 관련 사상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더욱이 고운사 연수전과 관련된 역사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상황은 역사콘텐츠는 물론 역사학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

3) 탁효정, 2012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탁효정, 2017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은행나무.

4) 조선후기 국왕의 기로소 입소와 기로연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던 2000년대 이후 한국사 분야의 주요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정, 2012 「肅宗 45년, 국왕의 耆老所 입소 경위와 그 정치적 함의 - 세자(景宗) 代理聽政의 명분적 보강 -」 『역사문화연구』 4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김문식, 2008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史學志』 40, 단국사학회.

심예원, 2021 「1744년(영조 20) 영조의 耆老所 入社 의례와 정치적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96, 朝鮮時代史學會.

와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 시대 기로소원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운사 연수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역사콘텐츠 시각으로 접근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운사 연수전이라는 역사적 소재가 학문 연구와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조선시대 기로소원당 건립의 역사적 배경

불교 신자들은 사찰 안에 개인의 소원을 담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를 ‘원당(願堂)’이라 불렀다. 원당 안에는 초상화나 위패를 봉안해 두었다. 원당사찰 혹은 원찰이라 표현되는 사찰은 결국 원당이 설치되어 있는 사찰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당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는데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종교문화였다. 특히 효 사상과 결합하면서 중국에서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황실의 원당은 후한 시대부터 설립되어 청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삼국시대부터 궁궐 주변에 원당이 설치되었던 것은 물론 일본에서도 건립 사례를 찾을 수 있다.⁵⁾

조선시대는 그동안 ‘숭유억불(崇儒抑佛)’의 개념을 적용해 설명되면서 불교에 대한 배척이 매우 강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조선이

5) 탁효정, 2017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은행나무, 12~13쪽.

건국 직후부터 불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유학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노력했던 점이나 신진사대부로 표현되는 정치세력이 불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는 조선이 유지되었던 500여 년의 시간 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불교를 단순히 송유억불 혹은 척불론(斥佛論)의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미 불교사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불교를 척불론에 입각해 설명하는 시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고려 말 조선 초의 이행기를 단절과 계승 중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뤘던 연구에서는 당대의 불교 인식에 대한 중요한 설명들이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불교를 설명할 때 수식어처럼 언급되는 ‘송유억불’, ‘억불송유’, ‘배불송유’ 같은 용어들은 문헌사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용어들은 조선시대 당대가 아닌 근대 이후의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송유억불로 대표되는 유교와 불교의 교체, 이에 관련된 불교의 침체라는 조선시대의 불교에 대한 전형적 인식은 1910년대 이후 고착되었다는 것이다.⁶⁾

이와 함께 한국사학계가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라는 등식을 설정하고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이행기의 불교를 단절론적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상, 관념, 신앙, 문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유구한 역사의 불교가 짧은 순간의 변화나 충격에 사라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 신앙은 인간의 삶에 위안을 주는 동시에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6) 김용태, 2019 「14장: 조선 불교, 단절인가 연속인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 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 역사비평사, 380~381쪽.

있도록 도와주는 종교적 구원의 역할을 계속 수행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존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시대 불교의 역할을 설명했다.⁷⁾

또한 불교를 가장 억압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는 15세기 조선은 일반적 통념과 달리 국가와 왕실, 여러 사찰에서 다양한 불교 서적을 간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적어도 불교 서적의 간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본다면 최소 고려시대 혹은 더 이전 시기와 조선시대의 명확한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학계에서는 국왕과 왕실이 주도했던 불교 서적 간행을 비롯한 15세기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간행 사업을 개인적 신앙행위 정도로 의미를 축소해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5세기 동안 국가와 왕실에서 주도했던 불교 서적 간행은 국왕의 통치 행위나 승정 체제와 같은 국가 운영의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⁸⁾

15세기의 조선 불교를 새로운 시각에 따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16세기는 물론 조선 후기의 불교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조선의 국왕 중 깊은 불심을 가졌던 인물들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관찬 사료를 비롯해 여러 자료에서 조선의 국왕과 불교에 관한 일화 등이 쉽게 확인된다. 특히 왕실 여성을 비롯해 왕자들 중에서도 불심이 깊은 인물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의 불교와 왕족은 여러 가지 사안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바로 ‘원찰(願刹)’이다.

7) 김용태, 앞의 책, 395쪽.

8) 손성필, 2019 「16장: 15세기 불교 서적의 재발견」 『고려에서 조선으로 - 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 역사비평사, 456~457쪽.

조선전기 왕족들은 국왕의 목인 아래 꾸준하게 불교 신앙을 이어 갈 수 있었다. 이들의 불교신앙이 나타났던 대표적 사례가 원당의 설치였다. 유학자였던 관료들의 강한 비판에도 49재 설행이나 원당의 설립과 같은 불교의 내세구복(來世追福) 의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조상에 대한 승모와 유교에서 강조했던 효(孝)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에서 원당을 설립했던 것은 조선시대 동안 계속되었다. 특히 왕실의 비빈들은 명산대찰(名山大刹)을 원당으로 지정하거나 새로 건립하면서 국가와 가족의 평안을 기원했다. 왕실원당은 각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선시대 동안 불교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⁹⁾

이러한 분위기가 조선후기까지 이어지면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고운사 연수전으로 대표되는 기로소원당이다. 기로소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정2품 이상의 전현직 문과 중 70세 이상인 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고려시대부터 같은 성격의 기영회(耆英會)가 조직되었고, 이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조선 건국 직후부터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세종 10년(1428) 변계량(卞季良)의 의견에 따라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조정 내에서는 ‘기로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¹⁰⁾

세종대 전함재추소가 치사기로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기로소라는 명칭이 본격화되는 첫 논의이기 때문이다. 당시 예조에서는 전함재추소에 올렸

9) 탁효정, 2012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2쪽.

10) 『世宗實錄』 권39, 世宗 10년 2월 10일 임술

던 의견을 근거로 계문했다. 예조는 전함재추소에 아문(衙門)이 없어 2품 이상의 한량(閑良)과 기로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제대로 통솔되지 못했고, 국가의 경사나 임금의 행차·출입과 같은 중요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태종이 즉위 초반에 아문을 설립해 토지와 노비 등을 내려주고, 국가의 행사에 의례에 따라 참여하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로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함재추소’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고, 고려시대에도 치정재추소(致政宰樞所)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니 ‘기로재추소(耆老宰樞所)’와 ‘기로소(耆老所)’의 두 명칭 중 하나를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신들의 의견은 다양했는데 우선 이직(李穰)은 명칭을 전함양부(前衙兩府)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희(黃喜)와 허조(許稠)는 기로소, 변계량은 치사기로소, 정초(鄭招)는 조청소(朝請所)라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세종은 대신들의 논의 중에서 변계량의 의견을 채택했다.¹¹⁾ 세종대 논의 과정은 기로소라는 명칭이 조선 건국 초기부터 공식화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로소에서 주도했던 기로연과 동일한 성격의 모임이나 일련의 역할을 수행했던 조직은 조선시대 이전에도 존재했다. 이미 고려시대 기록을 통해 기영회(耆英會)라는 명칭이 확인된다. 고려대 채홍

11) 『世宗實錄』 권39, 世宗 10년 2월 10일 임술 「禮曹 據前衙宰樞所上言啓 本所 古無衙門 二品以上 閑良耆老 無所依處 散亂無統 雖國有慶事 及行幸出入 皆不得知 殊失人臣之禮 惟我太宗恭定大王 卽位之初 設立衙門 賜公廩田一百結 奴婢五十口 書題二十名 每當 誕日正至 及國有慶事 行幸出入之時 臣等 咸集明庭 以行其禮 誠萬世不刊之令典也 但號爲前衙宰樞所 實爲未便 伏觀詔書 及教旨 皆曰文武大小臣僚閑良耆老等 前朝亦謂 致政宰樞所 乞以耆老宰樞所耆老所二號 詳定稱下 命下詳定所議之 李穰議 宜稱前衙兩府 黃喜許稠議 耆老所 卞季良議 致仕耆老所 鄭招議 朝請所 從季良議」

철(蔡洪哲)은 집의 남쪽에 중화당(中和堂)이라는 건물을 짓고 영가군(永嘉君) 권보(權溥) 등 국가의 원로 8명을 초대하여 기영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¹²⁾ 이외에도 기영회가 원로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일종의 잔치라는 의미의 기록도 남아 있다.¹³⁾ 물론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영회는 조선시대 기로소에서 주도했던 기로연(耆老宴)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록을 통해서 보았을 때, 기영회는 친목 모임의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영회와 기로회를 동일한 성격의 행사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¹⁴⁾

하지만 조선시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기영회가 점차 정기화되고 국가 주도로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영회는 조선시대에 처음부터 국가 주도로 선행되지는 않았다. 세종대 유관(柳寬)은 당(唐)의 백낙천(白樂天)과 송(宋)의 문언박(文彦博) 등이 동료들과 함께 낙중회(洛中會)를 만들었던 사례와 고려대 최당(崔儼)이 기영회를 조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직(時職)과 산직(散職)의 1품, 2품에 해당하는 인원 중 70세 이상의 몇몇 사람들을 모아 조기영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렸다.¹⁵⁾ 세종은 유관의 뜻이 매우 훌륭하다며, 선은(宣醞) 등을 보내 기영회에 속한 인원들을 위로했다.¹⁶⁾

12) 『高麗史』 권108, 列傳 21 諸臣 蔡洪哲

13) 『高麗史』 권71, 志 25 樂二 俗樂 紫霞洞

14) 기영회와 기로회의 성격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최경현, 「조선시대 耆英會圖의 일례: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본 <宣祖朝耆英會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Vol.40, 미술사연구회, 2021.

15) 『世宗實錄』 권59, 世宗 15년 1월 19일 계유

16) 『世宗實錄』 권59, 世宗 15년 1월 20일 갑술

기영회 혹은 기영연(耆英宴)으로 불리는 이 행사는 세조대에도 언급되었고,¹⁷⁾ 성종대에는 기영회가 정기화되어 훈련원(訓練院)에서 개최되었다.¹⁸⁾ 이후 성종대에는 국왕의 지시에 따라 기영회에 재상은 물론 일부 홍문관 관원까지도 참여했다.¹⁹⁾ 기영회는 중종대에도 훈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²⁰⁾ 명종대까지는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¹⁾ 그런데 이후 기록에서는 기영회나 기영연에 관한 언급이나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명확한 개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²²⁾

다만 인조대부터는 기로소에서 기영회 개최에 관한 의견을 올렸던 기록이 확인된다.²³⁾ 숙종대에도 기로소와 기영회에 관한 내용이 함께 언급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²⁴⁾ 특히 영조는 신료들에게 조선에서 기영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던 기록이 보인다. 영조의 질문에 우의정(右議政) 조현명(趙顯命)은 기영회가 실

17) 『世祖實錄』 권21, 世祖 6년 9월 10일 계미

18) 『成宗實錄』 권34, 成宗 4년 9월 9일 정유; 『成宗實錄』 권40, 成宗 5년 3월 3일 무자

19) 성종이 홍문관 관원들을 기영회에 참여시키도록 지시하자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은 어진이를 존경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목적의 기영회에 젊은 관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성종은 전교를 통해 젊은 사람이 어른을 모시는 것이 안될 이유가 없다며 참여를 지시했다(『成宗實錄』 권115, 成宗 11년 3월 3일 계미).

20) 『中宗實錄』 권99, 中宗 37년 9월 9일 병진

21) 『明宗實錄』 권13, 明宗 7년 9월 9일 무자

22) 『仁祖實錄』 권23, 仁祖 8년 10월 15일 경신; 『肅宗實錄』 권63, 肅宗 45년 1월 22일 을미

23) 『仁祖實錄』 권3, 仁祖 1년 9월 7일 갑오

24) 『肅宗實錄』 권63, 肅宗 45년 1월 22일 을미

제 개최되었던 사례들을 답변했다.²⁵⁾ 이는 기영회가 성종대부터 중종대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상황이 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행사의 주최가 기로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인조대 기록에서는 기로소가 기영연의 거행이 법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폐지된 지 오래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던 내용이 확인된다.²⁶⁾ 기영회 개최를 기로소에서 주도하고 기로연과 기영회의 의미가 구분될 필요가 없었던 정황을 반영했던 기록으로 보인다.

세종대 공식화되었던 치사기로소는 이후의 기록에서는 ‘기로소’라는 명칭으로 더 자주 등장하게 된다. 세종은 재위 말년에 연회를 내리면서 종친은 시어소(時御所),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은 의정부(議政府), 3품 당상관은 예조(禮曹), 기로와 재주는 기로소(耆老所)로 구분하기도 했다.²⁷⁾ 문종대에는 기로소의 기능을 추가했고,²⁸⁾ 단종대에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²⁹⁾ 세조대부터는 기로소가 예조를 통해 의례에 관한 의견을 직접 상언하기도 했다.³⁰⁾

광해군대 좌참찬(左參贊) 이준(李準)은 그동안 여러 사정 때문에 오랫동안 기로연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국 직후부터 기로소를 설립했던 의의를 되살리기 위해 잔치를 다시 베풀 것

25) 『英祖實錄』 권59, 英祖 20년 7월 29일 갑진

26) 『仁祖實錄』 권3, 仁祖 1년 9월 7일 갑오 「耆老所啓曰 耆英宴行於每歲 春秋令節 載在法典 乃是二百年 流來盛事 近因國家多事 廢之久矣」

27) 『世宗實錄』 권126, 世宗 31년 12월 10일 병진 「賜宴 宗親于時御所 文武二品以上 于議政府 三品堂上于禮曹 耆老宰樞于耆老所」

28) 『文宗實錄』 권12, 文宗 2년 2월 7일 신미

29) 『端宗實錄』 권5, 端宗 1년 3월 21일 무인

30) 『世祖實錄』 권4, 世祖 2년 7월 1일 무진

을 요청했다.³¹⁾ 광해군은 이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로연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³²⁾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쟁 등의 사정으로 기로연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는 기로연이 다시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것 같다. 기로연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³³⁾

기로소에 관한 논의가 크게 증가했던 시기는 숙종의 재위기였다. 당시 이집(李楫)은 숙종의 즉위 45년과 환갑을 기념해서 태조의 전례에 따라 기로소에 들어가는 의례를 거행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세자도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³⁴⁾ 숙종은 이집과 세자의 요청에 따라 기로소 입소를 허락하고 전교를 내려 관련 절차를 거행하도록 지시했다.³⁵⁾ 그리고 1719년(숙종 45) 2월에 숙종은 기로소에 들어가는 의례를 시행하고 왕세자와 문무 백관들의 진하(陳賀)를 받았다.³⁶⁾ 같은 해 6월에는 기로소 영수각(靈壽閣)을 완성했고,³⁷⁾ 기로소 당상들이 어첩(御帖)을 봉안(奉安)하는 의례를 진행했다.³⁸⁾

숙종대의 분위기는 결국 기로소원당의 설치까지 연결되었다. 조선에서 기로소원당이 설치되었던 것은 영조와 고종의 재위기에 각

31) 『光海君日記(중초본)』 권151, 光海君 12년 4월 12일 기미

32) 『光海君日記(중초본)』 권151, 光海君 12년 4월 14일 신유

33) 『仁祖實錄』 권3, 仁祖 1년 9월 7일 갑오; 『孝宗實錄』 권12, 孝宗 5년 1월 16일 정미

34) 『肅宗實錄』 권63, 肅宗 45년 1월 10일 계미

35) 『肅宗實錄』 권63, 肅宗 45년 1월 12일 을유

36) 『肅宗實錄』 권63, 肅宗 45년 2월 12일 을묘

37) 『肅宗實錄』 권63, 肅宗 45년 6월 9일 경술

38) 『肅宗實錄』 권63, 肅宗 45년 6월 24일 을축

각 한 차례씩 있었다. 영조가 설치했던 기로소원당이 바로 고운사에 있었다. 고종대에는 송광사(松廣寺) 성수전(聖壽殿)이 기로소원당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고운사는 고종 재위기에도 여러 차례 글을 보내 요청한 끝에 다시 한 번 기로소원당으로 지정되었다.³⁹⁾ 고운사는 조선시대에 최초로 기로소원당이 설치되었던 곳이자 영조와 고종대 모두 기로소원당을 보유하고 있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영조와 고종대 기로소원당이 설치되고 지정되었던 사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국왕의 기로소 입소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국왕 중 최초로 기로소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은 태조이다. 그런데 정작 태조대의 기록에서는 그가 기로소에 입소했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만 태조의 기로소 입소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은 현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14세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숙종 9년(1683) 송시열(宋時烈) 등의 건의에 따라 태조의 시호(諡號)를 추상하고, 위화도회군을 조선의 창업 의리로 확정했다. 이후 숙종은 태조의 국가 창업과 관련된 업적을 현창하는 작업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의 명분을 조선 창업과 연계하면서 국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반영된 조치였다.⁴⁰⁾

이후 숙종은 59세 때 국왕이 기로소에 입소하는 의례를 시행했다. 태조가 기로소에 입소했던 이후 처음으로 환갑이 된 국왕이 기

39) 탁효정, 2012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09쪽.

40) 윤정, 2012 「肅宗 45년, 국왕의 耆老所 입소 경위와 그 정치적 함의 - 세자(景宗) 代理聽政의 명분적 보강 -」 『역사문화연구』 43,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3~4쪽.

로소에 입소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역시 건국 시조였던 태조가 시행했던 의례를 그대로 따라하고자 의도했다는 점에서 태조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런데 숙종의 기로소 입소는 태조대의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논리 때문에 시행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갔지만 세자와 종친들의 도움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었다.⁴¹⁾

이후 숙종의 사례를 참고해 기로소에 입소했던 국왕이 영조와 고종이었다. 특히 영조는 숙종보다 더욱 적극적 태도로 기로소 입소를 진행하고자 했다. 심지어 51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로소에 입소했다. 영조는 기로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12차례나 따로 방문해 영수각에 전배했다.⁴²⁾

영조가 기로소에 입소했던 1744년 의성 고운사에 기로소 봉안각이 설치되었다. 고종 역시 영조의 사례를 참고해 1902년 51세에 기로소에 입소했다. 당시 설치되었던 기로소원당이 송광사 성수전이다. 그런데 고운사에서 기로소원당의 원조였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고종대에도 고종의 전패를 모실 수 있도록 허가되면서 다시 한 번 기로소원당으로 지정되었다.⁴³⁾ 고종의 재위기에는 두 곳의 기로소원당이 지정되었던 것이다.

고운사에서 기로소원당의 역할을 했던 전각이 ‘연수전’이다. 연수전은 영조대 설치되었던 기로소 봉안각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고종대 기로소원당으로 한 번 더 지정되면서 다시 건립되었던 건물이다

41) 윤정, 앞의 논문, 4쪽.

42) 이용윤, 2005 「朝鮮後期 寺刹에 건립된 耆老所 願堂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3, 불교미술사학회, 188쪽.

43) 탁효정, 2017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은행나무, 286~287쪽.

다. 기로소원당은 사찰 안에 위치한 ‘국왕의 사당’이었기 때문에 사찰 건축양식이 아니라 왕실 사당의 건축양식으로 설립되었다. 영조 때에는 관련 기록이 잘 남아 있지 않지만 기로소원당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면 아침 저녁으로 국왕에 대한 축원을 했고,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한양의 기로소에 보고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Ⅲ. 연수전의 복합적 성격과 역사콘텐츠

고운사 연수전은 독특하게도 조선시대의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성격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소재가 된다. 현대까지 남아 있는 조선시대 유적지나 건축물 중에 두 개 이상의 사상적 특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당장 조선시대의 국정 운영과 정치를 대표하는 궁궐에서도 불교사상의 요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조선시대 유적지나 유물에서 당대의 가장 대립적 사상으로 설명되어 왔던 유교-불교의 요소를 동시에 찾는 작업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연수전에는 어른을 공경하고 대우한다는 사상과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신앙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종교와 사회 사상의 모습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연수전이 여러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역사콘텐츠 분야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더욱이 고운사와 연수전에 관련된 역사자료는 조선시대의 다른

44) 탁효정, 앞의 책, 288쪽.

사찰 비해 비해 매우 풍부한 편이다. 비록 20세기 초반에 생산된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동안 생산되었던 역사자료이면서도 의성 지역의 역사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의 문헌 자료만으로는 관련 연구의 비약적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관찬 사료에는 고운사나 연수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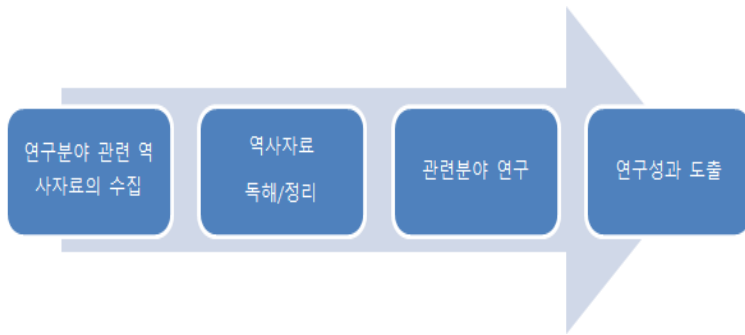
반면 역사콘텐츠 분야의 접근법은 다르다. 응용학문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역사콘텐츠 분야의 연구 방식은 역사학 분야의 연구와는 차별될 수 있다. 특히 전근대사 연구에서 방법론의 차이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 한국사 분야의 전근대사 연구는 문헌사료를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문헌사료나 고고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역사콘텐츠 분야의 연구에서는 전근대사에 관한 연구라도 반드시 문헌사료나 고고학 자료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현대에 제작된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성과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역사콘텐츠학 분야에서는 히스토리(history)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합성어인 ‘히스토리텔링(historytelling)’의 개념을 통해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결합시키는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역사학 영역과 스토리텔링 영역의 접점이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역사 관련 내용이 미디어는 물론 대중들을 통해 새롭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 대한 의미를 개념화하려는 시도였다.⁴⁵⁾ 역사콘텐츠학의 연구와 활용에 관한

45) 태지호, 2019 「‘히스토리텔링’ 개념을 통한 역사문화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의미」 『글로벌문화콘텐츠』 40,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이론적 틀을 제시했던 연구사적 의의가 큰 성과였다고 판단한다.

역사학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사자료의 수집과 독해-정리 작업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관련 역사자료가 매우 적게 남아 있는 고대사나 고려시대사 연구를 진행할 때에도 이 원칙은 다르지 않다. 비록 짧은 내용의 사료일지라도 이에 근거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1>이다.⁴⁶⁾



「그림 1: 역사학 분야의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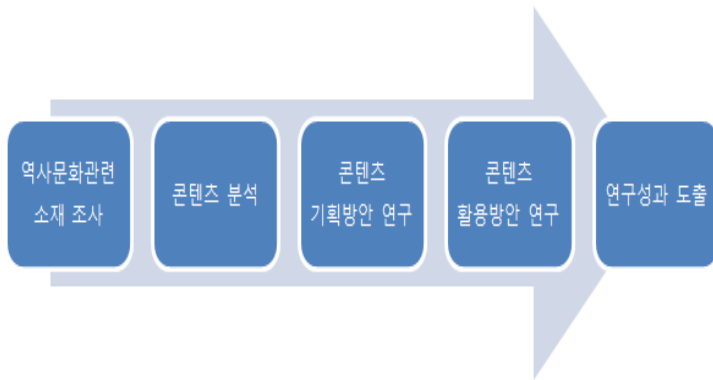
근대 역사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확정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료(史料)’로 지칭되어 왔던 역사자료는 ‘유형의 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연구자들은 사료 중에서도 문헌으로 작성되어 기록된 역사자료들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고 인정해 왔다. 물론 역사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의 대중 심리나 문화 등을

126~127쪽.

46) 이규철, 2020 「조선시대 사료 기반 역사콘텐츠의 현대적 재현과 제작」,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50~51쪽.

의미했던 ‘무형의 사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높게 평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사 연구에서는 문헌으로 기록되었던 역사 자료를 더욱 중요하게 취급했던 것도 사실이다.⁴⁷⁾

역사콘텐츠학 역사학과는 다른 방식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역사콘텐츠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소재를 찾는 작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역사학의 경우 연구 대상이나 소재를 역사자료 특히 문헌자료의 독해를 통해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역사콘텐츠는 연구 대상에 대한 조사를 다양한 층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선정 주제의 성격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해당 역사콘텐츠를 분석하거나 역사 소재를 이용해 기획·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다.⁴⁸⁾



「그림 2: 문화콘텐츠학 분야의 역사 관련 소재 연구 방법」

47) 오종록, 2014 『한국 한문사료 해석 연구』, 신서원, 447쪽.

48) 이규철, 앞의 논문, 56~57쪽.

고운사 연수전 역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콘텐츠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나 활용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연구와 관련 성과의 활용 방안을 함께 찾는 연구가 같이 진행된다면 역사적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수전이 조선시대 기로소원당과 사찰의 전각으로서 가지는 의미와 역사적 위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 원형을 콘텐츠나 역사콘텐츠 기획에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문화 원형 혹은 역사적 소재 자체를 그대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 원형을 가공해 대중의 취향에 맞추거나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는 방식이 있다. 궁궐 같은 역사유적지나 종교의 성지와 같은 공간들은 보전 자체만으로도 원형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 산업의 영역에서 생각해 본다면 역사적 소재나 문화 원형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⁴⁹⁾

고운사 연수전은 원형 자체로도 역사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연수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소재도 가지고 있다. 원형 자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이야기 소재나 인물들을 활용해 다양한 역사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연수전 관련 소재들을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 원형을 새롭게 가공해 콘텐츠화 하는 방법은 크게 자체의 스토리 구조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 인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49) 안창현·유제상·이건웅·임동욱·정지훈, 2017 「03 문화콘텐츠는 원형의 변주다」 『새로운 문화콘텐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64쪽.

수 있다. 서사 구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과 관련 인물을 차용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⁵⁰⁾ 이를 위해서는 고운사나 연수전과 관련된 인물들을 찾아서 소개하고 관련 일화들을 따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역사콘텐츠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신뢰성 있는 사료도 중요하지만 고운사 주변이나 의성군 일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설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운사 연수전에 관련된 소재들을 역사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작업은 고운사 및 연수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운사 소장 기록유산의 조사 사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와 현대를 포함한 비교적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보관하고 대중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 분야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많은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⁵¹⁾를 비롯해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 등 대규모 역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확보된 역사자료를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었다. 이러한 성과는 2000년대 이후 역사콘텐츠의 제작 빈도를 높이

50) 안창현·유제상·이건웅·임동욱·정지훈, 앞의 책, 64~65쪽 참조.

5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고 관련 자료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물론 고운사가 당장 국가기관급의 인원과 예산을 운영하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준의 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운사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가능한 많이 축적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중들이 관련 자료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고운사에서 확보한 역사자료들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관련 역사콘텐츠의 생산에 유·무형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운사와 연수전에 관련된 역사자료를 꾸준히 모으고 보관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축적된 자료의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고운사 연수전 등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역사콘텐츠가 제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단 자료가 충실하게 축적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제안될 수 있다.

역사자료의 수집과 보관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전근대 시기는 물론 현대 시기의 자료까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관련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 유적이거나 지역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모을 때, 현재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의외로 많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생산된 역사자료는 분량은 매우 적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역사자료가 전근대 시기에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다양한 보존 대책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자료의 중요성이나 보존의 필요성 등을 굳이 전문가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이미 인지하

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80~1990년대의 자료들은 보관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 해당 시기의 실무 담당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료를 모았고, 인수인계도 잘 이루어졌다면 관련 내용이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담당자의 은퇴나 교체 이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전근대 시기와 관련된 역사자료는 남아만 있다면 보존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에 비해 현대의 자료는 보존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 소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역사자료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10~20년 전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이 닿을 수 있는 시기처럼 생각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도 인간의 기억력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작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역사자료로 생각하고 꾸준히 보존하고 보관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관된 자료들은 나중에 관련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역사콘텐츠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안하고 싶은 점은 고운사 연수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관련 소재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시대는 물론 현대를 기준으로 해도 불교적 소재와 유교적 소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역사유적이거나 역사건축물 중에서 연수전과 같은 복합적 성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특성은 고운사 연수전을 통해 불교적 소재의 역사콘텐츠는 물론 유교적 소재의 역사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복합적 요소를 활용한다면 역사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텔링 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역사콘텐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학과 교육과정에도 역사콘텐츠와 관련된 교과목이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는 인문학의 위기 작게는 역사학의 위기로 표현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 또한 기초학문의 소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야만 해당 분야의 학문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운사 연수전의 역사적 요소를 일정한 방향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소재의 가치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사찰의 원당이자 국왕의 어첩과 위패가 봉안되었던 장소였고, 기로소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된다면 연수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고운사 연수전의 상징성은 지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의성 지역과 고운사에 관한 생생한 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지역문화나 생활사를 파악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고운사와 연수전과 관련된 역사콘텐츠가 생산되는 과정은 역사건축물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의성 지역을 비롯한 인접 지역은 물론 경상북도 지역 전체의 역사와 문화를 살피고 설명하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시대에 기로소와 원당의 역할을 함께 담당했던 매우 특별한 성격의 역사건축물이다. 고운사 연수전은 기로소 원당으로 조선시대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갖추고 현재까지 보존되어 왔다. 특히 연수전은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로소와 불교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원찰의 역사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운사 연수전은 역사콘텐츠 시각과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조선시대는 그동안 승유억불(崇儒抑佛)이 강조되면서 불교에 대한 배척이 강한 사회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불교는 조선 500여년 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이는 조선시대의 불교를 승유억불이나 척불의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불교사 연구에서는 승유억불이나 척불론에 입각해서 조선시대 불교를 설명하는 시각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었다.

조선의 왕족과 불교의 관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역사건축물이 원찰이다. 특히 왕실원당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종교-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교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 왕실과 불교의 연계가 조선후기까지 이어지면서 건립되었던 역사건축물이 고운사 연수전으로 대표되는 기로소원당이다.

기로소에 관한 논의가 크게 증가했던 시기는 숙종대였다. 숙종의 즉위 45년과 환갑을 기념해 태조의 전례대로 기로소에 입소 방안이 제안되었다. 숙종은 신하들과 세자의 요청에 따라 기로소 입소 의례를 준행했고, 기로소 영수각도 건립했다. 이러한 숙종대의 사정은 기로소원당의 설치까지 연결되었다. 기로소원당은 영조와 고종의 재위기 동안 설치되었는데, 고운사의 기로소원당이 영조대 설치되

었다.

역사콘텐츠학은 역사 소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으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운사 연수전은 역사콘텐츠학 분야에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응용학문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역사콘텐츠 분야의 연구 방식은 기존의 역사학 분야 연구와는 구별된다. 특히 문헌사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역사학의 전근대사 연구와는 달리 역사콘텐츠 분야의 연구는 문헌사료나 고고학 자료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성과물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운사 연수전에 관련된 소재들을 역사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운사 소장 기록유산의 조사 사업을 포함해서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중들이 고운사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운사 연수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부각하면서 관련 소재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역사 건축물 중 연수전과 같은 복합적 성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특성은 고운사 연수전을 통해 불교적 소재와 유교적 소재의 역사콘텐츠를 모두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연수전과 관련된 복합적 요소를 활용하면 관련 소재를 통한 스토리텔링 작업도 가능하다.

고운사 연수전의 상징성은 지역사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고운사 소장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의성을 비롯해 주변 지역과 경상도 일

대의 생활사와 문화사를 파악하는 작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고운사 연수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역사 연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고운사와 연수전과 관련된 역사콘텐츠의 생산 과정은 역사건축물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의성 지역은 물론 경상도 지역 전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투고일: 2022.11.13, 심사개시일: 2022.11.15. 게재확정일: 2022.12.09.]

【참고문헌】

- 오종록, 2014 『한국 한문사료 해석 연구』, 신서원.
- 정요근 외, 2019 『고려에서 조선으로 - 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 역사비평사.
- 탁효정, 2017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은행나무.
- 김문식, 2008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史學志』 40, 단국사학회.
- 손신영, 2014 「19세기 王室 後援 사찰의 조형성 -高宗年間을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4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심예원, 2021 「1744년(영조 20) 영조의 耆老所 入社 의례와 정치적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96, 朝鮮時代史學會.
- 윤정, 2012 「肅宗 45년, 국왕의 耆老所 입소 경위와 그 정치적 함의 - 세자(景宗) 代理聽政의 명분적 보장 -」 『역사문화연구』 4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이규철, 2020 「조선시대 사료 기반 역사콘텐츠의 현대적 재현과 제작」,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용윤, 2005 「朝鮮後期 寺刹에 건립된 耆老所 願堂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3, 불교미술사학회.
- 최경현, 2021 「조선시대 耆英會圖의 일례: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본 <宣祖朝耆英會圖> 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Vol.40, 미술사연구회.
- 탁효정, 2012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태지호, 2019 「‘히스토리텔링’ 개념을 통한 역사문화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의미」 『글로벌문화콘텐츠』 40,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Abstract】

The Historicity of Yeonsujeon Hall of Gounsa Temple and Application of Historical Contents Perspective

Lee, Kyu Chul

Yeonsujeon Hall of Gounsa Temple in Uiseong is a historical site that has special feature, which performed as both Giroso(耆老所) and Wondang(願堂) during the Joseon Dynasty. Yeonsujeon Hall of Gounsa Temple as Giroso Wondang has been preserved to this day with almost its original form. Yeonsujeon Hall has a historical feature that shows both Confucian and Buddhist idea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refore is highly likely to be used in various ways by applying the concept of historical contents.

Building a database of related materials is necessary to utilize the materials related to the Yeonsujeon Hall of Gounsa Temple as historical contents. A wide range of materials, including materials produced in modern times and historical materials from the Joseon Dynasty owned by Gounsa Temple, should also be collected and stored. It is because this is a task of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a system in which the public can utilize materials related to Gounsa Temple and Yeonsujeon Hall on a long-term basis.

There should also be support for the free use of related materials while emphasizing the complex nature of the Yeonsujeon Hall of Gounsa Temple. Yeonsujeon Hall, a historical site with a complex nature, shows the possibility of using both Confucian and Buddhist materials as contents. To highlight and utilize the complexity, an approach that supports

고운사 연수전의 역사성과 역사콘텐츠 시각의 적용

the free use of related elements rather than a fixed direction is required.

Keywords: Gounsa Temple, Yeonsujeon Hall, Giroso, Wondang, Historical Contents